

국립국어연구원 소식

1. 국립국어연구원 1992년도 연구 보고서 발행

국립국어연구원은 1992년도의 조사 연구 사업 성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서로 발행하였다.

- (1) '가나다 전화 자료집'
- (2) '국어 사전에서의 파생어 처리에 관한 연구'
- (3) '국어 사전 편찬을 위한 대상 자료 및 어휘 수집에 관한 연구'
- (4) '국어 순화 자료집'
- (5) '국어학 연감'
- (6) '동양 삼국의 약체자 비교 연구'
- (7) '문자열 검색·사전 검색 프로그램의 연구와 개발'
- (8) '번역 출판물의 오역에 관한 기초적 연구'
- (9) '북한의 국어 사전 분석(1)'
- (10) '외래어 표기 용례집(동구권 지명·인명)'
- (11) '컴퓨터 한글 자판에 대한 연구-자모 결합 빈도 조사'
- (12) '표준 화법 해설'
- (13) '한자 사용 실태 조사'
- (14) '한자, 외래어 사용 실태 조사'

이 보고서들은 정부 기관, 국공립 도서관 및 대학 도서관, 관련 학계 인사, 기타 관련 기관에 배포되어 업무와 연구에 활용될 것이다. 각 사업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나다 전화 자료집'은 '가나다 전화' 설치 이후 1년간(1991.2.2~1992.2.1)의 '가나다 전화' 기록 카드를 자료로 한 것인데, 제1부와 제2부로 나누어진다. 제

1부는 전화 문의 내용 및 문의자에 관한 사항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것이고 제2부는 어문 규범, 언어 예절, 이름 짓기, 어휘 등에 대한 문의·응답 사례 196건과 건의 및 제안 40건을 모은 것이다.

이 자료집은 문의·응답 내용과 문의자와 관련된 사항을 통하여 국민들이 우리말과 글을 사용하면서 누가,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고 나아가 문의·응답 사례를 통하여 우리말과 글을 바르고 곱고 정확하게 쓰는데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엮은 것이다. 또, 문의에 대하여 전화로 짧은 시간 안에 답함으로써 이해가 불충분했던 사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해 주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 ‘국어 사전에서의 파생어 처리에 관한 연구’는 국어의 파생 접사 및 파생어를 조사 연구하여 파생어의 사전적 처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파생 접사 및 파생어의 목록을 제시함으로써 국어 사전 편찬에 참고할 기초 자료를 제공하려고 이루어진 것이다. 그 동안 국어학계가 이루어 온 성과를 최대한 반영하고 그 기준들이 일관성을 갖추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왕의 국어 사전들에서 발견되는 미비한 점들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3) ‘국어 사전 편찬을 위한 대상 자료 및 어휘 수집에 관한 연구’는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종합국어대사전 편찬 사업에 필요한 국어 어휘를 조사 수집하기 위하여 개화기 이후 현재(1990년)까지 발표되거나 간행된 단편 소설류, 장편 소설류, 수필류의 목록을 작성한 것이다. 단편 소설류는 작품집에 수록된 것은 제외하고 어휘 수집에 도움이 될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작품을 200편 가량 선정함을 목표로 하였고, 장편 소설류는 100편 가량, 수필류는 200편 가량을 선정함을 목표로 하였다. 국어 사전 편찬에 이용될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작품을 선정할 객관적 기준은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리하여 학계의 어휘론 전공자와 문학 연구자, 작가 등 10명 정도에게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작품을 선정해 달라고 의뢰하여 그 목록을 작성한 것이다.

(4) ‘국어 순화 자료집’은 1990년 한국미술진흥협회에서 심의 요청한 미술 용어, 1990년과 1991년 문화부와 우리 원에서 수집한 일본어투 신문 제작 용어 및 식생활 용어, 1991년 조달청에서 심의 요청한 건설 용어, 1992년 총무처에서 수집하여 심의 요청한 행정 용어 등 전문 용어들을 모아 엮은 것이다. 여기에 실린 용어들은

우리 원의 검토를 거쳐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것들이다.

미술 용어는 한국화, 서양화, 조각, 도자기 공예, 목공예, 염색 공예, 금속 공예 분야의 용어들이고 신문 제작 용어는 편집, 교정, 제판, 인쇄, 문선, 정판 등의 용어들이며 식생활 용어는 음식, 음식 재료, 그릇 등 식생활에 관련된 것들이다. 건설 용어는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들을 위주로 모은 것이며 행정 용어는 각 행정 기관에서 쓰는 용어들로 농업, 수산업, 산림, 항만, 철도, 체신, 법률,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것이다

(5) '국어학 연감'은 1991년 한 해 동안의 국어학계의 연구 성과와 동향을 정리한 것이다. 내용은 일지, 국어학의 연구 동향, 국어학 관계 문헌, 국어학 관계 명부 등이다. 일지에서는 1991년에 학계에 있었던 중요한 일들을 정리하였고, 국어학 연구 동향에서는 국어학을 14개 분야로 나누어 해당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젊은 학자들에게 그 분야의 연구 흐름의 정리를 부탁하여 실었으며, 국어학 관계 문헌에서는 단행본으로 나오거나, 잡지, 신문에 실린 논문, 논평, 기사 등을 조사하여 분야별 논저 목록을 작성하였다. 국어학 관계 명부에서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국내의 국어학 전공자를 소개한 국어학 인명록을 비롯하여 전국 대학 국어학 관계 학과의 주소, 전화번호, 국어학 관계 학회 및 단체에 대한 소개와 아울러 국어 정책 관계 위원회 위원 명단을 실었다.

(6) '동양 삼국의 약체자 비교 연구'는 우리 나라 한자 약체자의 형성과 쓰임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중국, 일본과 비교함으로써 우리 나라 고유의 약체자를 확인하여 어문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엮은 것이다.

우리 나라 한자에 대해서는 고려말부터 조선말까지 간행된 佛書 중 간행 연도가 확실한 문헌의 族主秩과 '三國遺史', '東國新續三綱行實圖', '重刊杜詩諺解', 그리고 조선 시대에 편찬된 대표적인 자전류와 몽학서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는데 각 문헌에 나타나는 모든 이체자를 조사한 후 하나의 정자와 관련된 이체들을 모아 정리하였다. 중국의 이체자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宋元以來俗字譜', '秘別字新編'을 이용하였으며 일본의 이체자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常用漢字表'와 '千字文異體字類'를 이용하였다. 다만 비교 대상이 되는 일본의 문헌은 역사적인 쓰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쓰이고 있는 한자를 俗字, 略字, 本字, 通字 등으로 분류한 것이어서 한국, 중국의 조사 결과와는 성격이 다르다

(7) ‘문자열 검색·사전 검색 프로그램의 연구와 개발’은 우리 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전 편찬 사업을 위한 효과적인 자료처리 방안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원에서는 ‘한글’ 2.0을 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한글’은 문서 편집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료를 입력하는 데에는 편리함이 있지만, 입력이 끝난 이후 자료를 원하는 방식대로 이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그에 따라 우리 원에서는 ‘한글’의 제작사인 ‘한글과컴퓨터사’에 의뢰하여 일정한 양식에 의해 입력된 자료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문자열을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다. 국어 사전은 각각의 표제어를 레코드로 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가지면서도 자료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 문자열의 경우와는 달리 검색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 검색 프로그램을 문자열 검색 프로그램과 별도로 개발하였다.

(8) ‘번역 출판물의 오역에 관한 기초적 연구’는 이질적인 언어간의 번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추출하고 여기에 이론적인 뒷받침을 제공하여 번역 관련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도록 여어진 것이다. ‘Gulliver’s Travels’, ‘Woman in Love’ (이상 영어), ‘L’Etranger’, ‘Madame Bovary’ (이상 불어), ‘伊豆の踊子’, ‘手巾’, ‘金閣寺’ (이상 일본어) 등 7권과 이들을 저본(底本)으로 하는 번역본 14권을 대상으로 하여 1991년과 1992년의 2년에 걸쳐 수집한 자료를 몇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영어와 불어에 대한 부분은 언어적 차이와 문화적 차이를 대범주로 설정하고 이를 다시 28개 유형으로 세분하여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을 붙였으며 일본어에 대한 부분은 언어학적 설명을 주로 한 논문의 방식을 취했다.

(9) ‘북한의 국어 사전 분석(1)’은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조사하여 그 실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민족어의 동질성 회복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남한의 어문 규정에 나타나는 어휘들을 기준으로 북한의 ‘조선말대사전’(1992, 사회과학출판사)을 조사한 것인데 한글 맞춤법 관련 어휘(가나다 순), 표준어 규정 관련 어휘(가나다 순), 한글 맞춤법·표준어 관련 어휘(규정별 가나다 순) 등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남한 어휘는 ‘한글 맞춤법 해설’(1988, 국어연구소)의 각 규정 본문(규정에 어긋나는 형태 제외), 비고란 및 해설 부분에 나타나는 어휘 1,417개, ‘표준어 규정 해설’(1988, 국어연구소)의 표준어 사정 원칙의 각 규정 본문과 이에 대한 해설 부분에 나타나는 어휘(비표준어 포함)

1,461개, '표준어 모음'(1990, 국어연구소: '국어생활' 제22호 별책)의 어휘 선택 부분에 나타나는 어휘(비표준어 포함) 1,210개가 기준이 되었다. 또, 남북한 어문 규정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 표준 발음법, 세로쓰기 등 남북한 어문 규정을 조항별로 비교하여 부록으로 실었다.

(10) '외래어 표기 용례집(동구권 지명·인명)'은 우리 나라가 동구권 국가들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에 부응하여 동구권 언어의 외래어 표기에 대한 규범을 제시하기 위해 엮은 것이다.

국립국어연구원은 개원 첫해인 1991년 표기법 시안 작성에 착수하여 동구권 언어 중에서 폴란드 어, 체코 어, 세르보크로아트 어, 루마니아 어, 헝가리 어에 대하여 해당 언어 전문가와의 토의를 거쳐 그 결과를 문화부에 제출하였고 문화부에서는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1992년 11월 27일 이들 언어의 외래어 표기법을 고시하였는데 이 용례집은 고시된 표기법에 근거한 것이다. 여기에는 옛 소련 지역과 불가리아, 알바니아를 제외한 동구권의 약 1,700여 개의 지명과 200여 개의 인명이 수록되어 있다. 지난 1986년에 간행된 '외래어 표기 용례집(지명·인명)'과 중복되는 60여 개의 지명, 인명 중의 일부는 이번에 고시된 동구권 언어의 외래어 표기법을 적용한 결과 한글 표기가 바뀌었는데 이 용례집은 이러한 사항도 반영하고 있다.

(11) '컴퓨터 한글 자판에 대한 연구-자모 결합 빈도 조사'는 한글 자판 배열의 효율성에 관한 조사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한글 자모의 상호 결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지금까지 한글 사용의 실태에 대하여 음절 및 자모 단위의 단순한 출현 빈도에 대한 통계 조사는 이루어진 바 있으나, 한글의 각 자모들이 다른 자모들과 결합되는 유형별 빈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진 바 없다. 그러나 한글 자판에서의 한글 각 자모들의 배열은 결합 빈도를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한글 자모 각각에 대하여 그 선행하고 후행하는 자모들의 실제적인 통계 조사가 필요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교과서, 베스트셀러, 신문, 잡지 등 다양한 자료를 입력하였으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모의 2단위 결합, 3단위 결합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계 처리하였다.

(12) ‘표준 화법 해설’은 1990년~1992년에 걸친 화법 표준화 사업의 결과인 ‘표준 화법’에 대한 해설서이다. 우리 원과 조선일보사가 공동으로 추진한 이 사업의 결과로 마련된 표준안을 ‘국어의 표준 화법(시안)’(문화부·국립국어연구원)과 ‘우리말의 예절’(조선일보사·국립국어연구원)로 발간하여 그 동안 국민들의 여론을 폭 넓게 들었다. 이렇게 수집된 의견을 반영하여 1992년 10월 19일 국어심의회 한글분과위원회는 표준안을 일부 수정하여 국어의 표준 화법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표준 화법 해설’은 확정된 표준 화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호칭어·지칭어, 경어법, 인사말 등의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뒷부분에는 ‘찾아보기’를 붙여 이용하기가 편리하도록 하였다.

(13) ‘한자 사용 실태 조사’는 주로 보통 명사에 나타난 한자 사용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주로 고유 명사의 한자를 조사한(14)의 ‘한자, 외래어 사용 실태 조사’와 짝을 이룬다. 1990년에 간행된 여섯 가지의 일간 신문(동아일보 3월치, 서울신문 5월치, 조선일보 7월치, 중앙일보 9월치, 일간스포츠 11월치, 한국일보 12월치)과 아홉 가지의 월간 잡지(리더스 다이제스트 2월치, 신동아 3월치, 불교 5월치, 음악동아 5월치, 신앙세계 6월치, 주부생활 8월치, 컴퓨터주니어 9월치, 문학사상 10월치, 월드투어 11월치)를 대상으로 하였다. 내용은 한자별 용례, 조사 결과 분석 및 부록(한자의 출현 빈도, 연대별 자료집 및 교육 한자와의 비교, 한자별 용례 수)으로 되어 있다.

(14) ‘한자, 외래어 사용 실태 조사’는 주로 고유 명사에 나타난 한자 사용의 실태와 아울러 외래어의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조사 대상은 1991년에 간행된 세 가지의 일간 신문(동아일보 4월치, 서울신문 8월치, 중앙일보 12월치)과 다섯 가지의 월간 잡지(문학사상 6월치, 월간조선 6월치, 객석 6월치, 불광 6월치, 여원 7월치)이다. 한자의 경우는 고유 명사를 인명(성, 이름), 지명, 단체명, 간행물명, 사건명, 건조물명, 상품명으로 나누어 통계 처리하고 어휘의 결합 양상을 살폈으며 이들 자료에 나타난 중국과 일본의 한자는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외래어는 일반 어휘를 중심으로 빈도수를 조사하였다.

2. 연구원 인사 이동

사임

- 김연순-연구 2부 연구원직 (6급 상당)을 사임 (2월 6일자)
- 이윤하-연구 1부 연구원직 (4급 상당)을 사임 (3월 16일자)
- 임홍빈-연구 1부장 (학예연구관)을 사임 (3월 22일자)

신규 발령

- 박양규-연구 1부장 (학예연구관) 겸직 발령 (3월 23일자)
- 서정목-연구 2부장(학예연구관) 겸직 연임 발령 (3월 23일자)